

전남교육청, 폐교를 지역민 정서적 중심지로 탈바꿈

장석웅 교육감, 폐교활용 정책 전환 계획 발표...매각·대부 지양

2024년까지 폐교 34곳에 50억 투입 마을공동체 발전 거점으로

11곳 공감쉼터·8곳 학생체험공간·7곳 전남농산어촌유학 지원시설

전남 지역 34곳의 폐교가 지역 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6일 오전 도교육청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유튜브 채널 전남교육TV 생중계)을 열고, 전면적인 폐교활용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각 또는 대부에 의존하던 기존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환을 꾀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4곳의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조성한다.

이 중 11곳에 16억 원을 투자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감쉼터로 만들고, 8곳은 12억 원을 들여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8곳의 폐교에는 12억 원을 투입, 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과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7곳에는 10억 원을 들여 전남농산어촌유학 지원시설 등 마을공동체 발전의 거점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지자체와 마을을 제외한 개인에게 폐교 매각·대부 지양 ▲폐교를 학생·주민·지역 성장 거점으로 조성 ▲지자체와 상생·협조체제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자칫 폐교가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와 안전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폐교 인근 지역 주민을 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인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개인에게 매각·대부된 폐교가 당초 목적

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 착수가 늦어져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을 제외한 개인에게 폐교 매각·대부를 가급적 지양한다.

폐교를 공감 쉼터·학생 체험공간·주민복지시설·지역 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 지역민과 상생 활용하는 모델로 개발해 지역민의 품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변화된 폐교 정책을 통해 폐교를 지역 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지역민에게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였지만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 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폐교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폐교가 지역 사회 정서의 중심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나 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광주교대부설초,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하교길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 유도

광주교대부설초가 26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광주교대 정문 및 풍향문화관 주차장 입구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필문대로 지하철 공사, 아파트 건립 공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북구청·북부경찰서·광주녹색어머니회·부설초 학부모

회·두암파출소 등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횡단보도로 건너기, 교통신호 지키기, 학교 앞 저속 운전 등의 교통지도를 실시했다.

포돌이와 포순이는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에 대해 안내했고, 1학년 학급을 순회하며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통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교통법규를 익힐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기동취재본부

목포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 인기 만점

1학기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및 수학체험연수 운영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 목포수학교육체험센터는 2021학년도 1학기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및 수학체험연수’를 진행하여 학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수학교육체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교실과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발빠르게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에 힘입어 2021

학년도 1학기 현재 전남 서부권(목포, 무안, 해남, 진도, 영암, 신안, 강진) 초·중·고 43개 학교 120여개 학급 3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은 교통이 낙후되어 시간과 거리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도서 지역이나 벽지의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동학년 모두가 참여하기 힘든 대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수학과 관련한 체험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목포=박정수기자

완도교육지원청, 학생자치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21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자치 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다.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는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내 학생자치 활동의 내실화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및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 문

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목표지향적 사고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이라는 주제로 학생회장선거와 학생회 구성, 프로그램 구성의 실제(열기-목표 세우기-아이디어 발산-아이디어 수렴-마무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학생자치 이렇게 해요!’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석한 김OO 교사(완도수산고)는 “다양한 사례중심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를 어떻게 운영할지 윤곽이 잡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생중심의 학생자치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어디든지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 ①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②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③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④ 주차장 옹도로 설치 주차장형
- ⑤ 현관앞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차양형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Solar Solution SUNTEAM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신청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접수|방문|상담|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